



## 송 광 업

1981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92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대학원 졸업

1995 : 미국 Oregon 주립대 방문교수

현 재 :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교수

Overdenture는 잔존하는 치근 주위의 치조골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일반적인 총의치와는 달리 치아의 발거로 인한 proprioception의 상실을 막을 수 있는데, 이러한 치아로부터의 sensory feedback은 저작력의 조절과, 치아 사이에 있는 물체의 크기나 texture를 감지하고, 하악의 기능시 위치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치아의 완전한 소실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후에 총의치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치주조직의 손상으로 국소의치의 지대치로 사용하기 어려운 치아를 이용한 overdenture 증례와 잔존치근에 이용될 수 있는 attachment의 제작방법, 그리고 연관된 문헌을 고찰하고자 한다.